

■ ‘빈 그물’로 복어잡이 철 보낸 보길도 어장 르포

“그 많던 ‘복쟁이’는 어디로 갔을까”

겨울철 밝미안 완도 보길도 복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산란기 때의 무분별한 포획과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야 제 맛

25일 오전 완도군 보길면 청벌리 선착장을 출발한 김영자(여·53)씨의 FRP ‘남원수산호’(3t급)가 물살을 가르며 이각망(二角網)이 설치돼 있는 곳에 닻을 내렸다. 길이 100m에 달하는 이각망을 거둬들이기

만큼 어렵다”고 말했다. “미리네 횃집”을 운영하며 17년째 보길도에서 복어를 잡고 있는 김씨. 4~5년 전만 해도 그물을 한 번 걸을 때마다 40~50마리는 손쉽게 잡았다. 하지만 요즘은 10마리도 채 건지기 어렵다.

‘청정횃집’ 김재욱(48)씨도 과거 한 망(網)에 15~20kg의 복어를 건져 올렸지만, 몇 년 전부터는 2~3kg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 때 ‘자지복’과 ‘밑복’잡이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5년여 전부터 복어잡이를 그만뒀다.



완도 보길도 어민 김영자(뒤쪽)씨와 조병안씨(앞쪽)가 이각망에 걸린 복어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보길도 복어는 해수온 상승과 산란기 때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완도=위정환기자 jrwi@kwangju.co.kr

산란기 남획·해수온 상승 ‘고갈’ 어민들 “80%이상 줄었다” 울상

전, 김씨와 시동생 조병안(48)씨가 기대 반, 체념 반 말을 주고받았다. “복쟁이”가 걸려있을까요? “복쟁이” 사라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복쟁이’타령이야?”

어민들은 복어가 잡히지 않는 이유로 산란기 때의 무분별한 포획을 꼽았다. 복어는 산란기인 3~4월이 되면 보길도 근해로 몰릴듯이 모여 들었지만, 최근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복어가 북상한 것도 보길도 복어가 사라져가는 한 원인이다. 제주도 해상에 서 조업해온 복어잡이 선박들은 최근 울릉도까지 올라와 정박하며 복어를 잡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어 찾는 손님도 급감

완도수협에 따르면 복어의 위판액은 지난 2002년 7천40만원(2천516kg)에서 지난해 6천625만원(2천454kg)으로 줄었다. 보길도 어민들이 잡은 복어 대부분을 수협에 위판하기보다는 운영하는 횃집에서

직접 파는 것을 감안하면 어획량 감소는 훨씬 크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복어의 인기도 예전같지 않다. 눈서리가 몰아치는 밤, ‘히레’(지느러미) 술과 복 요리로 추위를 녹이는 재미가 사라진 것이다.

김영자씨는 “복어를 찾는 손님이 예년에 비해 30%는 줄어든 것 같다”면서 “복어값이 비싸지만 5~6마리 한 바구니를 단돈 7만원을 받고 팔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경찰의 방범활동에도 불구하고 절도와 강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5일 새벽 6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S점 앞 주차장 승용차 8대와 택시 1대 등 9대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이 모두 파손됐다.

파손된 차량에서는 현금 15만원과 네비게이션 5대 등이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강·절도 ‘활개’

하룻밤새 주차 차량 9대 털려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누군가 같이 뺏겼던 물체로 유리창을 부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

시 동구 계림동 D약국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약사 김모(여·33)씨를 흉기로 위협, 돈을 요구하다 김씨가 큰 소리를 치자 도주했다.

경찰은 이 남자가 신장이 1m65cm 가량이며 검정 트레이닝 복을 입었다는 약사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행방을 쫓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태권도장 차 문에 점퍼 끼어

6살 어린이 참변

광주시 남구 진월동

6살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23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유모(6)군이 S태권도 도장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점퍼가 차문에 끼이는 바람에 5m 가량 끌려가다 뒷바퀴에 깔렸다. 유군은 인근 세터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밤 9시께 숨졌다. 유군은 이날 태권도 수업 후 사별인 위모(28)씨가 운전하는 차로 짐으

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인솔자는 없었고 3명의 다른 학생들이 타고 있었지만, 유군이 끼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운전자 위씨는 경찰에서 “바퀴에 뭔가 치인 것 같아 정찰을 하고 확인해 보니 유군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씨가 차량 운행 시간에 쫓겨 운전을 부주의하게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원침 (7062) 김종두



음주사고 95% “동승자 있었다”

한일장신대 석사 논문

동승자의 절반은 가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 받은 사람 가운데 95%가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가 있었으며 동승자의 절반 가량은 가족이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최충신(47)씨의 석사학위 논문 ‘음주 교통사고자의 알코올 의존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과 함께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164명(남 141명, 여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4.3%만이 음주사고 당시 홀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의 유형은 가족이 51.8%로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 22.0%, 친구 12.8%, 친척 6.1%, 기타 3.0% 순이었다. 응답자의 32.9%는 “한자리에 서 소주 3병 이상을 마시는 편”이라고 답해 폭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날 기억을 잃어 버리는 이른바 ‘필름 끊기’는 횃수도 적지 않아 응답자의 3명 가운데 1명 꼴인 34.8%가 주 1회 빈도로 기억을 잃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장흥 화재 70대 노인 숨져

지난 24일 오후 7시20분께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조립식 가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자고 있던 박모(여·77)씨가 연기에 질식사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사고 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병실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은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 서 규정 속도를 시속 12km 초과해 택시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L(55)씨를 사고 10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이모(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폭행공방’ 이민영·이찬 대질 조사

○서울 동작경찰은 25일 가정폭력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텔레트 이찬(본명 광현식)과 이민영을 불러 대질 조사 중.

○경찰은 이찬이 오전 9시에 경찰서로 나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9시20분께 이민영이 도착하자 함께 수사관을 만나 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찬과 이민영은 지난해 12월 결혼 직후 결별했고, 이민영이 상습적으로 언어폭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1월 초 이찬을 고소. /연합뉴스

희망전남 만들기 프로젝트 전남지역경제인협회

「전남지역경제인협회」는 전남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영계의 긴밀한 제휴로 노사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협력체제의 확립과 나아가 건전한 노사관계 방형정립을 기반으로 모범적인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회원사업 (경영합리화 지원사업)

- 지역경제, 노동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권고 활동
•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국제협력 활동의 기회제공
• 경영·인사·노무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각종 자료제공
• 회원사 상호간의 친선도모 및 경영정보 교환의 기회 제공

2. 교육연수사업

- 최고경영자를 위한 연찬회 각종 세미나 등 실시
• 회원사 실무자 대상 직무교육사업 (총무, 경리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등)
• 경영관리자의 인사조직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교육
• 과학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실시
• 우리지역 대표 금융사인 대산증권(주)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의 체계화 및 금융교육 연중 실시

3. 노사협력사업

- 노사관계정립과 기업경쟁력 제고로 21세기형 선진노사관계 정착에 기여
• 노사간 정립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노사정의 공명대 형성 및 정책방향 제시

- 노사협력 전국우수사례로 뽑히는 “노사정 합동 산업평화 공동선언”을 채택 실천 결의

4. 고용안정사업

-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및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탄력적 고용제도의 연구개발
• 고용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및 참여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 고용안정 및 축진을 위한 정책사업 등

5. 산재·고용보험 사무조합 운영사업

- 산재·고용보험 사무 위탁 및 실무교육, 지도

6. 향후 전망

본회는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공익경제단체로서 우리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모든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속에 지역경제발전과 국가산업발전의 견인차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사관계, 선도적인 기업경영, 세계화추진 및 정보공유 등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대표적인 경제단체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 희망 전남 !! 전남지역경제인협회가 이루어 내겠습니다 !! http://www.jrea.or.kr

전남지역경제인협회 회장 활금추 수석부회장 김영석

개방형 인재 공개모집 공고

전남지역경제인협회 사무국(사무국장)에서 근무할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 2월 26일

전남지역경제인협회 회장

- 1. 선발예정 직위 및 인원
가. 선발예정 직위 : 전남지역경제인협회 사무국장
나. 모집 인원 : 1명
2. 임용(계약)기간 : 3년
3. 신분
가.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내부규정에 의해 전남지역경제인협회 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신분유지
4. 보수 수준
가.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5. 주요 업무 내용
가. “희망 전남 만들기 프로젝트 전남지역경제인협회” 광고관 관조
6. 응시자격 요건
가. 학력·경력요건 등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력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내국인에 한함)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는 응시할 수 있음
다.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자
라. 정부산하기관·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팀장급(부장급) 이상으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에 있는 자
7. 시험방법
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8.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개별종료(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나. 일시 : 2007년 3월 12일(월) 10 : 00 ~ 18 : 00
다. 장소 : 전남지역경제인협회 사무국
9. 전남 나주시 중앙동 64-8번지 순화빌딩 2층(우편번호 520-010)
(전화 061-334-8877-8, 팩스 061-334-8876)
9.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A4용지 5매 이내) 1부
10. 제출기간 : 2007년 3월 6일까지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남지역경제인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화 061-334-8877-8 팩스 061-334-8876